

데카르트와 칸트 (續) 그 忌日을 보내며 (完)

金斗憲

「임마누엘 칸트」는 一七二四年 四月 二十四日 獨逸 東「푸로시아」의 小都市 「쾨니히스베루구[쾨니히스베르크]」에서 微賤한 馬具工의 第四子로 태어났다. 그의 兩親은 敬虔派의 信奉者이었고 特히 信仰 두터운 母親의 感化는 그의 將來할 精神生活에 聖潔한 地盤을 이루었다. 그는 일찍이 그곳 中學校에서 古典文學에 많은 興味를 가졌었고, 十八歲된 때 그곳 大學에 入學한 後 주로 自然科學의 研究 特히 「뉴-턴」의 物理學의 研究와 「라이프닛쓰[라이프니츠]」·「볼푸[볼프]」의 哲學에 沒頭하였었다. 그는 大學을 마치자 家庭教師의 職에 就하여 生計를 維持하면서 學究에 精進하였고, 一七五五年에 「形而上學의 認識 第一原理新講」을 講師求職 論文으로 提出하여 그 뜻을 이루어 以來 十數年間 講師의 地位에 있다가, 一七七〇년에 「感覺界 及 睿智界의 形式 及 原理에 取하여」라는 就職 論文으로 비로소 正教授의 地位를 얻었다. 이 時期를 通하여 그의 外的 生活은 한□□를 지었고, 그의 思想에도 明瞭한 方向을 加초아 그의 批判哲學은 正히 이때로부터 始作하였다. 그의 代表著作인 이른바 三批判書는 一七八一年, 一七八八年, 一七九〇년에 出版되었고, 그의 名聲은 漸次로 높아져 한동안 大學總長의 地位에까지 이르렀다. 그 後로 「베르텔」 宰相의 宗教□論 彈壓政策에 筆禍의 難을 겪었고, 더구나 「理性의 限界內의 宗教論」의 著述로 因하여 한동안 □□승에 處한 일도 있었다.

□來 晩年에 이르기까지 講義와 著述에 沒頭하였으나, 漸次 老衰에 이르러 講義도 中止하게 되고, 一七九七年 二月 十二日 이 大哲人은 「에스이스트 굿」(그것은 좋다)이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高요히 長逝하였다.

그는 平生 獨身이었다. 一生을 오로지 學究에 맞친 典型的 哲人이었다. 그는 「永久平和論」의 著者로서 平和論者일 뿐 아니라 그 生涯 自體가 平和로운 그것이었다. 그의 生活은 簡素, 敬虔, 規則的이었고 그의 性格은 □忍, 精密, 嚴格하였다. □□하면서 □□한 自己省察 그것은 그의 生活 全體의 基調이었다. 그는 早熟한 天才가 아니요 勤勤孜孜하여 大器晚成의 學者이었다.

博覽強記! 드디어 그가 이루은 學問의 領域은 至極廣範한 것이었다. 數學, 物理學, 天文學, 地理學, 建築學 等の 自然科學에 精通하였음은 一般自然史, 宇宙開發說, 星界佳人說, 人間起源說 等に 볼 수 있을 것이요, 幼時 鄉里에서 三十里밖에 가본 外에 平生 旅行하여 본 일이 없는 그가 「웨스트민스타-」敎에 關한 精密한 講義에 倫敦子로 하여금 驚歎케 하였음으로써 또한 짐작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그의 學的 目標은 批判哲學, 先驗的 觀念論의 樹立에 있었다. 그는 知識의 批判으로써 數學과 自然科學의 基礎를 確立하는 同時에 從來의 形而上學을 否認하여 드디어 直觀形式으로서 時間, 空間을 論하고 感性形式으로서 □□을 論하였으며, 形式의 先天的 綜合을 論하여 意識一般에 及하고, 資料에 對한 形式, 客觀에 對한 主觀, 現象에 對한 本體의 原理를 論辨하여 여기에 主觀主義的 先驗論을 確立하였다. 이른바 「코페르니카스[코페르니쿠스]」的 轉向은 從來의 主觀, 客觀의 關係를 轉倒하여 大宇宙를 마음의 所産으로 把持하여 頓悟大覺의 地境에 이르렀다.

그러나 理論理性的 限界를 奄然히 認知한 그는 實踐理性的 優位를 濟唱하여 先驗的 道德論을 樹立하였으니, 여기에 이르러 그의 哲學的 思索에 □□의 要求를 達成하였다. 그는 本來가 誠實한 道德的 性格의 所有者이었다. 그는 道德의 根源을 自由의 理念에 求하였다. 이 點에 □□해야 그는 가장 많이 「루소-」의 影響을 받았었다. 그는 「루소-」의 「에밀」을 感銘 깊이 □□하였었다. 自由의 基盤한 「칸트」의 人格觀은 現代에까지 가장 尊嚴하게 評價된 바이어니와 모든 事物의 價値에 對하여 人格의 價値를 □□□적으로 삼았다. 그의 無上命法은 곧 人格의 尊嚴, 萬人平等, 目的의 王國을 實現하는데 着眼한 것이었다. 그는 말하되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畏敬과 尊嚴을 느끼는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內心의 道德律이요 天空의 星辰이다.」 함은 果然 그의 生涯와 思想을 如然하게 表現함이었다. 그는 知識으로써 大宇宙의 根底에 까지 深知하였으나, 오즉 美感으로써 大宇宙를 讚頌하였고 理論으로써 形而上學의 問題를 確立하는대까지 이르렀으나, 오즉 實踐으로써 人生의 本義를 把持하였다. 그가 이루어낸 學的 成果는 일즉 哲學家 史家 「쿠노-·훗시아-[쿠노 피셔]」로 하여금 貯水池에 比할만큼 古今의 思想史에 넓이 關聯하여 그의 功績을 枚擧하기에 결을이 없거니와 그가 남긴 人格의 빛은 또한 久遠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삼가 그의 靈位에 祝願하노니 이때에 眞善美와 平和를 이루게 하소서. (以上)